동식물 천도재 올리는 스님의 '녹색법문'



억지로라도 쉬어가라
현종 지음
담앤북스/ 1만6800원

1999년부터 천도재 봉행해
생명존중 정신 확산에 초석
파괴되는 환경 이야기 담아
"내가 정한 속도로 살아가자"



현덕사 동식물 천도재에 참여한 아이들이 그린 그림.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그 이상한 걸 왜 지내십니까?"

20년 넘게 매년 동식물 천도재를 봉행하는 강릉 현덕사 주지 현종 스님에게 가장 많이 따라붙는 질문이다. 불교계에 반려동물 천도재가 드문드문 생겨난 게 벌써 몇 년 전이니 20여 년 전 반려동물도 아닌 '동식물 천도재'를 올린 스님을 본 사람들은 퍽 궁금했겠다. 도대체 그게 무엇이고 왜 하는 건지.

1999년 강릉에 현덕사를 창건하고 첫 백중을 준비하던 현종 스님은 어린 시절 장난을 치다가 빨랫줄에 앉은 새끼 제비를 죽인 것이 마음에 걸려 천도재를 올리기 시작했다. '망(亡)합천 제비 영가'라는 위패를 만들어 올린 천도재는 이듬해부터 '사람으로 다친 영혼, 사람으로 위로하다'라는 주제의 동식물 천도재로 거듭났다. "세상 만물에 불성이 있다"고 설하신 부처님의 '일체중생 개유불성' 가르침을 따라 인간의 탐욕으로 목숨을 잃은 동물과 식물을 위로하고 그들이 육도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발원하기 위해서다.

불교계에서 으레 하는 '물고기 방생'이 '인간 방생'의 가치로 전환되는 데 걸린 시간만큼 동식물 천도재도 처음엔 대중의 이해를 쉽게 구하지 못했다. 조선시대를 거치며 유교적 정서가 짙게 깔린 대한민국에서 조상의 위패와 동식물의 위패를 나란히 두는 일이 가당키나 했을까. 하지만 '오늘 나의 발자국은 뒤에 올 사람의 길이 된다'고 했듯이 동식물 천도재는 어느덧 연기의 가르침을 새기고 생명존중의 정신을 확산하는 초석이 됐다.

〈억지로라도 쉬어가라〉는 이런 동식물 천도재를 올리는 현종 스님의 녹색 산문집이다. 녹색인 이유는 현종 스님이 자연환경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 동식물 천도재가 현종 스님을 대표하는 수식어지만 현덕사는 불교환경연대의 제25호 녹색사찰이기도 하다.

"이런 땅에 뭔들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든다. 동식물이 살 수 없는 땅에는 당연히 인간도 살 수 없다. 봄날에 새들의 사랑 노래를 들을 수 있고 봄 나비가 날아다닐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런 곳이 살기 좋은 나라다." p.92 '사라진 봄날의 추억' 중에서

책 이름은 현덕사 다실에 걸린 족자 문구에서 따왔다. 오래전 해인사 장경각에서 기도하던 한 스님 방사에 적혀 있던 글귀를 계속 새기고자 현덕 스님이 족자로 만든 것이다. 스님은 "남의 말이나 속도에 나를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과 속도에 따라 살아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면 현덕사에서 '억지로라도 쉬어가라' 쉬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봤으면 하는 뜻을 담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없어져도 아침해는 뜨고 지고 저녁에는 둥근달이 뜬다. 그리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초롱초롱 빛난다. 내가 없어도 이렇게 세상은 잘도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쉬어가자." p.200 '억지로라도 쉬어가라' 중에서

책은 동식물 천도재 이야기와 급속도로 파괴되는 자연환경에 대한 스님의 쓴소리 외에 현덕사에서 마주하는 사계절을 비롯해 현덕사를 찾는 사람들과의 인연담도 담고 있다.

▲저자 **현종 스님**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등명낙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학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중앙승가대 학보사 편집장 소임을 맡은 것이 인연이 돼 IMF사태 때 서울역 노숙자들과 같이 지내며 애환을 다룬 글을 불교신문에 실어 반향을 일으켰다. 1999년 강원도 소금강 계곡 만월산 중턱에 현덕사를 창건, 환경과 생태운동에 관심을 두고 매년 동식물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민화 한 점으로 염원하는 희망찬 하루



365일 민화 일력
윤열수 지음/ 원더박스/ 2만5000원

그 옛날부터 민화에는 우리 소망을 실현해주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한 바람을 담아 민화를 그리고 모셨다. 〈삼국지연의〉 〈구운몽〉 〈춘향전〉 등 조선후기 인기 소설에 등장하는 담배 먹는 호랑이나 달에서 약방아를 찧는 토끼도 민화로 표현됐듯 말이다.

'마음의 그림'이라 불리는 민화가 바로 지금 우리 곁으로 다시 소환됐다. 책 〈365일 민화 일력〉은 매일 한 점씩 민화를 감상하며 희망찬 하루를 염원할 수 있도록 366장의 민화와 그에 대한 해설이 실렸다.

저자 윤열수 가회민화박물관장은 민화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조선후기 산신탱화 연구'로 석사 학위를, '문자도를 통해 본 민화의 지역적 특성과 작가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2년 수집한 민화를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 개관한 가회민화박물관에는 민화 2700여 점을 비롯해 전적류, 무신도 등 총 3500점의 자료가 소장·전시돼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화 박물관인 가회민화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국공립박물관, 개인 소장품, 해외 보관 중인 작품까지 직접 엄선해 다양한 민화를 책에 담았다.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용과 호랑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거북과 불로초, 과거 급제와 출세의 꿈을 담은 잉어와 쏘가리, 부귀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모란과 천도복숭아, 부부 금슬을 상징하는 원앙과 나비, 가족의 화목과 번영의 뜻을 담은 토끼와 수박 등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 민족의 곁을 지키며 행운과 복을 가져다준 민화 속 주인공들을 총망라했다.

그림마다 핵심을 짚는 설명을 붙여 '보는 기쁨'과 '읽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민화에 등장하는 식물과 동물, 상상으로 빚어낸 창조물들이 그림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림이 그려진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림에 투영된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인지 등 독자가 가질만한 질문의 해답을 친절하게 풀어놨다. 김내영 기자

스님이 전하는 특별한 부자수업



부자수업
법상 지음
마음의숲/ 2만원

인터넷 마음공부 모임인 '목탁소리'를 이끄는 법상 스님이 내놓은 〈부자수업〉은 '마음이 부자이면 되는 것이니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오'라는 뻔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시중의 경영서나 자기계발서와 같이 '돈 버는 방법'을 소개하지 않는다.

법상 스님은 "돈을 버는 방법 속에 비움의 지혜가 있고,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서도 현실에서는 돈을 벌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문제는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결핍된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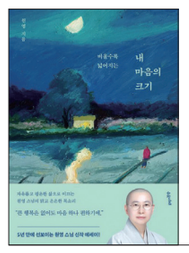
법상 스님은 생각이 일어남과 동시에 어떠한 지연도 없이 그 에너지가 우주 끝으로 퍼져 나간다고 하는 비국소성(non-locality) 양자물리학을 인용,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우주로 내보내지 말고 먼저 돈을 끌어들이는 생각인 풍요의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했다.

내보냄의 법칙이 곧 끌어당김의 법칙이며 말 그대로 우주 끝까지 그 생각의 에너지는 전달되고, 그 비슷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또 다른 생각과 즉각적으로 공명하게 되어 진동이 일어나서 그 에너지가 되돌아올 때는 함께 공명했던 많은 비슷한 에너지들을 끌어와서 창조 활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법상 스님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나는 풍요롭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는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와 '나는 풍요롭다, 부자다,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천지 차이가 난다. 내가 풍요롭다고 생각되면 돕고, 나누고, 보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밖으로 내보내며 그 사람의 의식 자체가 베푸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큰 복락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가 바로 그 뜻이라는 게 스님의 조언이다.

신중일 기자

"내 안의 감로수를 찾아라"



내 마음의 크기
원영 지음
수오서재/ 1만6800원

불교 계율을 전공한 불교학자이자 현대적 언어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 오고 있는 원영 스님이 오랜만에 에세이를 선보였다.

원영 스님의 〈내 마음의 크기〉는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고 성찰하는 불교의 수행자지만, 현실과 인간관계 속에서 흔들렸던 스님의 자기 고백이자 성찰이다. 실제 스님은 출가한 후에도 헛된 집착과 소유욕 때문에 마음이 바늘구멍만큼이나 옹졸해질 때도 있었고, 괴로움에 그만 모든 걸 뒤로하고 사라지고 싶을 때도 있었음을 털어놓는다. 그러다 좋은 인연들과 단절되고 치열하게 마주하던 마음도 더는 챙기지 않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됐다. '허상을 좇을 일이 아니라, 내 안의 감로수를 찾아야겠다'고.

스님의 글은 읽는 것만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린다. 군더더기 없이 맑은 음성이 책을 여는 순간순간 전해진다.

1장 '나를 다독이며 삽니다'에는 원영 스님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다. 출가 후부터 30년이 흐른 지금까지 서툴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2장 '서로에게 기대어 기둥이 되어주고'에서는 가족, 친구 등 관계에 관한 고민과 해답을 공유한다. 3장 '저 산꼭대기를 바라보며 걷자'를 통해서는 긴 고립의 시기를 지나며 새로이 지니게 된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4장 '지혜의 꽃을 피우리'에서는 여러 스승에게 배운 깨우침의 순간들을 전한다.

신중일 기자

흔들림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나보다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남긴 글,
한시(漢詩)에서 발견하다
불교계 대표 문장가이자 한문학에 정통한 원철 스님이
한시에서 길어올린 '언제든 나의 중심을 잡아줄 삶의 지혜'
아주 오래된 시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
혼자라도 걱정 않는 삶
원철 지음
264쪽
18,000원
한시는 단순한 '시'가 아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손을 거쳐
기록되고 가슴에 새겨져서 전해진
이 짧은 글 속에는 당대의
사상가와 문장가들이 남긴,
시간을 초월하여 곱씹을 만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
법정 스님의 뒤를 잇는
불교계 대표 문장가 원철 스님이
한시 가운데서도 '명구'만 가려뽑았다.
한국·중국·일본이라는 지리적 차이와
승속을 막론하고 옛 문헌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던 한시를 찾아
핵심 구절만 옮기고
새롭게 이야기와 의미를 더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인생은 빠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늦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꿈꾸게 하는 위로와 응원의 말
세상 모든 연약한 존재들을 향한 자현 스님의 감성 법문
"생각이 맑은 것보다는 정돈된 것이 좋다.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흔들리는 것이 옳다."
산사와 속세, 성과 속을 오가며
잠시 동안의 침묵 사이에 떠오른 말들,
이 책에 실린 100여 편의 짧은 글은
고통스러운 삶을 애써 버티며 살아가는
모든 연약한 존재를 향한 자현 스님의 기도이다.
태양에는 밤이 깃들지 않는다
자현 스님 산중일기
248쪽 | 양장본 | 올컬러 | 16,000원